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윤희¹ · 변진이^{2,†}

경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024년 3월 9일 접수: 2024년 4월 14일 수정: 2024년 4월 18일 채택)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Yoonhee Seok¹ · Jinyee Byun^{2,†}

College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Received March 9, 2024; Revised April 14, 2024; Accepted April 18, 2024)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S시, C도와 K도에 위치한 대학의 간호대학생(2~4학년)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사후분석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진로 프로그램 참여,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가 있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0.3%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년별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emotional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nursing students and identifies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5, 2023, to January 3, 2024, targeting 197 nursing college students (2nd to 4th year)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 City, C Province, and 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software,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ost hoc analysis using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nursing students' social-emotional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nyee@kiu.kr)

behaviors included year of study,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program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with these variables explaining 40.3% of the varia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to strengthen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considering the academic year of nursing student. And customized career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s, Social-emotional competences,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을 시도하였다[1].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정하는데, 자기 적성이나 대학 및 전공학과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성적이나 취업 등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020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의 62.4%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함이며[3],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40.9%), 안정성(22.1%), 적성과 흥미(13.9%) 순으로 보고되었다[4].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듯,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간호학과는 타 전공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입학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5].

간호학과는 졸업 후 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에 취업하여 전공과 취업기관 간의 연계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학생 중 졸업 시점까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없이 막연하게 취업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6]. 특히,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 및 사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 하나로, 취업 후 1년 이내 사직하는 신규 간호사의 비율은 2021년 53%로 나타났다[7].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 성인기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8].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직업 세계로의 이동을 앞둔 대학생 시기에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지지하고,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9].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10],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입사를 희망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영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데 몰두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 채용 정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과정으로[12]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진로나 취업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또한 전공만족도는 직업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14]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취업한 병원에서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반면 낮은 전공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에서의 소진 정도를 높이며[16,17] 추후 자퇴나 전과 등 진로를 변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8]. 이처럼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에 따라 변화 가능한 요인 이므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과 태도, 성실성 등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9]. 신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현대적 인성교육은 도덕과 사회정서역량이 합쳐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20]. 사회정서역량이란 자기 정서에 대한 인식과 통제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21],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변화할 수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이라는 틀 안에서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서역량이 높을수록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반면에, 사회정서역량이 부족한 경우 환자와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4]. 따라서 사회정서역량은 간호사로서 임상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환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며 환자를 위해 다른 직종과 협업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으로 예비간호사인 대학생 시기부터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 및 미래 간호 인력인 간호대학생이 사회정서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며,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등 일부의 요소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25-27].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사회정서역량,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와 사회정서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졸업 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시, C도와 K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 3,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자로 모집하였다.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전공에 대한 깊이가 타 학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라는 선행연구[28]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사회정서역량

사회정서역량은 Zhou와 Ee[29]가 개발한 사회정서역량 검사지(Social Emotional Competency Questionnaire: SECQ)를 Lee[30]가 25문항으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자기 인식' 5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자기관리' 5문항, '관계관리' 5문항, '책임 있는 의사결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2$ 이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Kim과 Ha[12]가 34개 문항으로 개발한 '학과만족' 도구를 Lee[31]가 18개 문항으로 추출하여 수정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전공에 대한 '일반 만족' 6문항, '인식 만족' 6문항, '교과 만족' 3문항,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2$ 이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32]이 16개 문항으로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도구를 Lee[33]이 18개 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개의 하위영역으로 '진공 수집 활동' 6문항, '도구 구비 활동' 5문항, '목표 달성 활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3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 이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서베이몽키를 이용하여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도와줄 연구보조원 3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이 각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 URL 설문 링크를 올렸다.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가 URL 링크에 접속하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소요 시간, 연구의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 설문 결과의 익명성 등이 적힌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시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에게만 다음 장에 제시된 연구 질문에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총 208명의 참여자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않은 11부의 설문을 제외하여 총 197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답례로 소정의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활용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사후검정은 Scheffe로 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5세이며, 학년은 2학년 78명(39.6%), 3학년 59명

(29.9%), 4학년 60명(30.5%)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167명(84.8%), 남학생이 30명(15.2%)이었으며,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 대한 질문에 '취업률'로 응답한 대상자가 83명(42.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동아리 활동 여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105명(53.3%)이었으며,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147명(74.6%)이 참여하였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137명(69.5%)이 전공 공부라고 응답하였고, 대상자들의 학점은 3.5이상 4.0미만인 학생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 점수는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89점으로, 하위영역 점수는 자기 인식 4.19점, 관계 관리 3.99점, 책임 있는 의사결정 3.97점, 사회적 인식 3.95점, 자기관리 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점수는 총점 5점에 평균 4.21점으로, 하위영역 점수는 인식 만족 4.47점, 일반 만족 4.03점, 교과 만족 3.96점, 관계 만족 2.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총점 4점 만점에 평균 2.62점으로, 전공 수집 활동 2.72점, 도구 구비 활동 2.69점, 목표 달성 활동 2.50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사회정서역량의 경우, 학년($F=4.802, p=.009$), 간호학과 진학 동기($F=7.883, p<.001$),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t=1.998, p=.047$), 학점($F=2.560, p=.04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년의 경우 4학년이 2학년보다 사회정서역량 점수가 높고,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서는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주변의 권유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 학점이 4.0~4.5점인 대상자들의 사회정서역량 점수가 평균학점이 2.5점 미만의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간호학과 진학동기($F=6.279,$

Table 1. Differences in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Year	Sophomore ^a	78 (39.6)	93.83±13.19		75.24±7.81		43.54±10.12				
	Junior ^b	59 (29.9)	97.83±13.10	4.802 (.009**)	74.93±9.50	1.348 (.262)	46.39±10.02	12.844 (<.001**)		a,b<c	
	Senior ^c	60 (30.5)	100.82±13.53		77.37±9.45		52.55±11.24				
Age	20~22	117 (59.4)	96.53±13.24	-786 (.433)	75.55±8.44	-.472 (.637)	45.43±10.18	-2.666 (.008**)			
	23≤	80 (40.6)	98.07±13.97		76.16±9.72		49.64±11.85				
Gender	Male	30 (15.2)	97.67±14.07	-215 (.830)	75.97±9.17	.112 (.911)	44.33±12.74	1.514 (.132)			
	Female	167 (84.8)	97.25±13.47		75.77±8.95		47.64±10.69				
Motivation for pursuing higher education	Aptitude and interest consideration ^a	39 (19.9)	98.00±14.05		78.46±7.69		47.77±11.21				
	Parental or peer encouragement ^b	31 (15.7)	90.03±12.35	7.883 (<.001**)	71.16±8.97	6.279 (<.001**)	43.23±10.29	1.549 (.203)		a,d>b	
	High employment rate ^c	83 (42.1)	95.72±13.01		74.75±9.21		47.90±11.20				
	Perceived as a valuable profession ^d	44 (22.3)	104.14±11.80		78.68±7.98		47.89±10.96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Yes	105 (53.3)	96.73±12.51	-469 (.640)	75.98±8.46	.307 (.759)	46.63±9.95	-676 (.500)			
	No	92 (46.7)	97.64±14.66		75.59±9.55		47.71±12.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programs	Yes	147 (74.6)	98.27±13.89	1.998 (.047*)		76.69±8.68	2.438 (.016*)	48.93±10.60	4.059 (<.001**)		
	No	50 (25.4)	93.88±11.94			73.16±9.36		41.86±10.75			
Difficulties in campus life	Relationships with peers	11 (5.6)	97.91±10.79			75.18±8.92		49.18±11.81			
	Studying major subjects	137 (69.5)	96.41±14.41	.689 (.560)		75.39±9.29	.496 (.686)	46.18±10.47	2.319 (.077)		
	Clinical practice-related	33 (16.8)	100.15±12.09			76.67±8.52		51.39±12.01			
	Others	16 (8.1)	97.16±9.60			77.88±7.18		45.12±12.13			
Grade Point Average	4.0 to 4.5 ^a	47 (23.9)	96.68±13.04			78.51±9.36		49.87±11.83			
	3.5 to below 4.0 ^b	77 (39.1)	96.71±12.79			74.56±8.31		46.81±9.27			
	3.0 to below 3.5 ^c	53 (26.9)	98.96±14.02	2.560 (.040*)	a>e	76.32±9.66	2.202 (.070)	46.34±12.11	1.202 (.311)		
	2.5 to below 3.0 ^d	16 (8.1)	93.31±12.64			73.44±7.74		44.19±9.35			
	Below 2.5 ^e	4 (2.0)	79.25±19.84			70.25±3.30		43.50±21.98			
Family and acquaintances working in nursing or medical professions	Yes	109 (55.3)	95.67±12.99	-1.712 (.088)		75.69±8.60	-1.176 (.860)	46.07±10.97	-1.491 (.138)		
	No	88 (44.7)	98.97±14.01			75.92±9.43		48.43±11.08			

* p < .05, **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97)

Variables	Likert (M±SD)	Min-Max	Range	Sum (M±SD)	Min-Max	Range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3.89±.54	2.32~5.00	1~5	97.16±13.53	58~125	25~125
Self-awareness	4.19±.62	2.00~5.00	1~5	20.96±3.09	10~25	5~25
Social awareness	3.95±.67	1.80~5.00	1~5	19.76±3.34	9~25	5~25
Self-management	3.32±.91	1.20~5.00	1~5	16.59±4.55	6~25	5~25
Relationship management	3.99±.66	1.80~5.00	1~5	19.97±3.32	9~25	5~25
Responsible decision making	3.97±.65	2.20~5.00	1~5	19.86±3.23	11~25	5~25
Major satisfaction	4.21±.50	2.72~5.00	1~5	75.80±8.96	49~90	18~90
General satisfaction	4.03±.63	2.33~5.00	1~5	25.15±3.76	14~30	6~30
Perception satisfaction	4.47±.55	2.67~5.00	1~5	26.84±3.30	16~30	6~30
Curriculum satisfaction	3.96±.73	2.00~5.00	1~5	11.87±2.18	6~15	3~15
Relationship satisfaction	2.67±.91	1.00~5.00	1~5	8.02±2.72	3~15	3~1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62±.61	1.17~4.00	1~4	47.14±11.06	21~72	18~72
Major acquisition activities	2.72±.71	1.00~4.00	1~4	16.36±4.26	6~24	6~24
Equipment procurement activities	2.69±.71	1.00~4.00	1~4	13.29±3.55	5~20	5~20
Goal achievement activities	2.50±.67	1.00~4.00	1~4	17.48±4.69	7~28	7~28

$p<.001$)와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t=2.438$,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서 적성과 흥미 또는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점수와 주변의 권유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학년($F=12.844$, $p<.001$)과 나이($t=-2.666$, $p=.008$),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t=4.05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4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3살 이상의 대상자가 23살 미만 대상자보다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한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

은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정서역량은 전공만족도($r=.565$, $p<.001$) 및 진로준비행동($r=.54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r=.473$, $p<.001$)를 나타냈다.

3.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Table 3. Correlation among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7)

Variable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Major satisfaction
	$r(p)$	
Major satisfaction	.565(<.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44(<.001**)	.473(<.001**)

** $p < .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N=197)

		B	SE	β	t	p
Model I	Year	3.947	1.099	.298	3.591	<.001**
	Age	.422	1.853	0.019	.227	.820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programs	-6.305	1.682	-.249	-3.748	<.001**
	F=13.433, $p < .001$ **, $R^2 = .173$, Adj $R^2 = .160$					
Model II	Year	2.288	.973	.173	2.351	.020*
	Age	1.462	1.610	.065	.908	.365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programs	-4.978	1.465	-.196	-3.397	<.001**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388	.048	.475	8.094	<.001**
F=29.822, $p < .001$ **, $R^2 = .383$, Adj $R^2 = .370$						
Model III	Year	2.488	.950	.188	2.619	.010*
	Age	1.227	1.569	.055	.782	.435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programs	-4.395	1.438	-.173	-3.057	.003**
	Social emotional competences	.284	.056	.347	5.057	<.001**
Major satisfaction	.281	.083	.228	3.372	<.001**	
F=27.421, $p < .001$ **, $R^2 = .418$, Adj $R^2 = .403$						

* $p < .05$, ** $p < .01$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모두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모형 분석 결과, Durbin Watson 지수 값이 1.886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들 간 자기상

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041~1.685으로 기준치인 10 이하, 공차한계(tolerance)는 .596~.976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모델 I은 앞서

일반적 특성에서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과 나이,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투입하였으며, 모델 II와 III에서는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를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I의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3.433($p < .001$)로 적절하며, 학년($\beta = .298$, $p < .001$)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beta = -.249$, $p < .001$)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6%였다. 모델 II에서는 일반적 특성이 투입된 모델 I에 사회정서역량 변수를 투입하여 산출하였으며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29.822($p < .001$)로 적절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beta = .173$, $p = .020$)과 진로프로그램 참여($\beta = -.196$, $p < .001$), 사회정서역량($\beta = .475$, $p < .001$)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37%의 설명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정서역량이 투입된 모델 II에 전공만족도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27.421($p < .001$)로 적절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beta = .188$, $p = .010$),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beta = -.173$, $p = .003$), 사회정서역량($\beta = .347$, $p < .001$), 전공만족도($\beta = .228$, $p < .001$)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3%의 설명력을 보였다.

3.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은 5점 만점에 3.89점이었었다.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 인식이 4.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관리가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살펴본 Kim[34]의 연구 결과, 사회정서역량 점수는 4.03점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 인식이 4.20점으로 높고, 자기관리가 3.58점으로 낮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수행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자기관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며 조절·관리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35]. 주체적인 삶과 타인과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정서역량 개발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나 목표 수립 등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멘토링, 튜터링 등[36]의 다양한 학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21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전 학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3.89점, 3~4학년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3.62점으로 나타난 결과[37]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도 점수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진로 탐색 교육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38], 본 연구의 대상자 중 74.6%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였으므로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전공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전공만족도 하위영역 중 점수가 높은 영역은 인식 만족(4.47점), 점수가 낮은 영역은 관계 만족(2.67점)이었다. 특히, 관계에 대한 만족은 학우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도 영향을 미치므로[39]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물론 상담 시스템, 교수-학생 학습공동체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지원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가치 있는 직업' 또는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점수와 '주변의 권유'라 응답한 대상자의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타인에 권유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 보다 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전공을 선택할 때 학교생활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40]. 전공 선택시 자기 확신과 동기 없이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적성이 맞지 않다고 느끼며,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41], 대학 입학 준비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및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학과에 진학한 후에도 전공만족에 대한 지속적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

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5점 만점 중 2.62점으로, 이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본 연구 결과(2.70점)와 유사하다[42]. 진로준비행동 하위영역 점수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나 전공수집활동이 2.72점으로 점수가 높고, 목표달성활동은 2.50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공수집활동은 자기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직업 현황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33], 본 연구에서 전공수집활동 점수가 높은 것은 온라인 검색을 이용한 정보 획득이 대중화된[43]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20대로 인터넷 이용 시간이 타 연령층에 비해 많고, 정보검색 등을 주로 함으로써[44]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에 목표달성활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정보수집활동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정서역량, 전공만족도와 전공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13, 45]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요구된다. 사회정서역량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사회정서역량과 유사한 개념인 감성지능의 경우,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이 높고[46], 간호사로서의 역할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병원에 잘 적응하여, 이직 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다[47].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사회정서역량 및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먼저,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과 2, 3학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과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48].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저학년과 비교하여 취업 준비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 진로탐색의 요구도가 적은 1학년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추후 1학년이 포함된 반복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기성찰 중심의 진로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확신을 가지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된다[49].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현실 적응력이 향상되고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0]. 따라서 재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하여 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체계화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간호학 차원의 특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정서역량은 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국한된 개념이었으나,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요한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간호 연구와 교육의 지속적인 연계 확장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전공만족도, 사회정서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의 유지를 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과 요인에 대해 직간접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대학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년별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가 가능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간호학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별 사회정서역량 정도를 비교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학년별 진로 관련 프로그램,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on improving the humanistic valu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pursued by the revised 2009 curriculum", (2009).
2. D. Park, H. W. Kwon, J. S. Lee, J. S. An, K. Y.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uidebook for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major selection for career paths", (2020).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3 Youth statistics", (2023).
4. Statistics Korea, "2023 Social survey", (2023).
5.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 261-270, (2016).
6. I. S. Park, Y. J. Han,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identity, stress management, and satisfaction for major class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7, No.1, pp. 145-167, (2017).
7. Hospital Nurse Association, "Survey on the deployment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2023).
8. Y. H. Cha, J. S. Kim, J. W. Ja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career of high school students using text min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24, No.2, pp. 201-222, (2023).
9. S. Y. Lee, P. S. Soung, Y. K.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ckground variable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velopment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1, No.4, pp. 49-68, (2017).
10. Y. K. Choi,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 2085-2097, (2012).
11. H. J. Choi, J. S. Kim,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8, No.3, pp. 21-23, (2018).
12.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standing Stud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 7-20, (2000).
13.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 344-352, (2016).
14. M. R. Lee, M. 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 197-208, (2018).
15. H. S. Kim, J. H. Song, "The effects of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on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dual moderation effect of first job-major fit and job valu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2, pp. 1-22, (2021).
16. S. A. Hwang,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9, No.2, pp. 73-85, (2021).
17. Y. G. Haile, A. L. Senkute, B. T. Alemu,

- D. M. Bedane, K. B. Kebede,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burnout among Debre Berhan University medical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BMC Medical Education*, Vol.19, No.1, pp. 1-11, (2019).
18. K. Milton-Wildey, P. Kenny, G. Parmenter, J. Hall, "Educational preparation for clinical nursing: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new graduates from two Australian Universities", *Nurse Education Today*, Vol.34, No.4, pp. 648-654, (2014).
 19. N. Y. Kim,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3, pp. 345-363, (2018).
 20. S. L. Do,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haracter education and measurement of the characte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9, No.4, pp. 719-735, (2015).
 21. S. Y. Kim, H. J. Kim, S. S. Lee, "Effects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8, pp. 477-494, (2018).
 22. H. J. Kim, Y. J. Cho, J. Y. Kim, M. S. Kim, "Exploring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latent group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f Korean child and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4, No.3, pp. 557-585, (2023).
 23. M. D. C. Giménez-Espert, S. Maldonado, V. Prado-Gascó, "Influence of emotional skills on attitudes towards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s vs.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20, No.6, pp. 4798, (2023).
 24. K. Sobczak, A. Zdun-Ryżewska, A. Rudnik, "Intensity, dynamics and deficiencies of empathy in medical and non-medical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Vol.21, pp. 1-9, (2021).
 25. E. H. Na,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7, No.4, pp. 205-214, (2023).
 26. K. A. Kim,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1, pp. 520-530, (2023).
 27. S. Y. Kwon, J. Y. Byun,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mpathy on caring 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40, No.3, pp. 484-495, (2023).
 28. K. Y. Ji, J. Y. Han,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6, pp. 33-41, (2016).
 29. M. Zhou. J. 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emoti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SECQ)", *International Journal of Emotional Eduaton*, Vol.4, No.2, pp. 27-42, (2012).
 30. S. S. Le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emotion and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3, pp. 929-952, (2018).
 31.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2004).
 32.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33. M. S. Lee,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 students”, Jeonju University, (2003).
34. M. J. Kim, “The impac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family health, and self-esteem on persona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7, No.7, pp. 365-374, (2023).
 35. E. J. Kim, “The need analysis for developing social and emotiona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32, No.1, pp. 25-44, (2020).
 36. T. Y. Kim, S. B. Choi, H. G. Yoon, “Analysis of progress in socioemotional learning and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y via peer tutor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5, pp. 1893-1907, (2020).
 37.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 344-352, (2016).
 38. L. Wei,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 Comparison of domestic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5, No.3, pp. 464-482, (2023).
 39. Y. S. Choi, S. J. Won, “Effect of teacher-student interaction, self leadership on self-e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ellness*, Vol.17, No. 4, pp. 69-74, (2022).
 40. H. S. Jeon,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2, pp. 213-221, (2017).
 41.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 27-36, (2014).
 42. K. H. Kim,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3, pp. 399-408, (2018).
 43. K. S. Na, J. S, Lee, “Analyzi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lectronic document use and document read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31, No.3, pp. 271-291, (2014).
 44. B. S. Keum, S. J. Mi, Y. H. Lee, Y. J. Han,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
 45. J. S. Lee, J. E. Hong, M. S. Weon, S. H. Park,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2, pp. 124-133, (2022).
 46. H. Y. Song, S. H.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e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 628-640, (2016).
 47. H. J. Chae,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9, pp. 221-229, (2019).
 48. K. S. Lee, S. A. Ahn, “Effects of nurses ima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2, pp. 809-821, (2017).
 49. J. H. Kim, H. S. Shin, “Effects of self-reflection-focused career course on

-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adaptability in nursing students: a mixed methods Stud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36, No.5, pp. 395-403.
50. S. G.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 1-25, (2008).